

# 김 지사, 직원들과 도정운영 추진상황 소통

### 12월 소통의 날 행사서, 한 해 동안 고생한 직원 격려... '2036 하계올림픽 개최 계획' 강연도 진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열린 12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한 해 동안 도정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시작을 내내에도 도전과 성공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불 조성을 위한 피켓 퍼포먼스와 김 지사의 소통 시간에 이어 혁신도정상 시상 및 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초청 특강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12월 소통의 날 행사에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불 조성을 위한 피켓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김 지사는 “올 한 해 동안 정말 애 많이 썼다”며, “직원 여러분이 좀 더 에너지를 가지고 도전경쟁의 자세로 열심히 해줘서 전북자치도 출범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까지 잘 치러냈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섰다”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도전해야 하며, 1%를 10%, 20%, 50%로 가능성을 늘려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작업에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가미되고, 도민들의 하나된 결집된 힘이 더해지면 1% 가능성이 90% 이상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대회 개최 계획’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정 연구위원은 “도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하계올림픽의 정식 명칭은 제36회 2036 전주 하계올림픽대회이며,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하고, 7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전세계 약 1,500만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4년 4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에서 최우수상에

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림픽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국제기준 경기장 조성 등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시 매력도 및 국제적 지명도 제고를 통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상승 등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 지역 발전의 새역사를 쓸 수 있는 행사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4년 4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에서 최우수상에

보건의료과와 스마트농산과 2개 부서, 우수상은 청년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세정과, 새만금지원수질과, 생활환경과, 교육협력추진단,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전북연구원 8개 부서에 각각 수여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장에서 열린 제17회 희망나무 사랑예술제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 꿈과 열정으로 물든 무대

## 제17회 희망나무 사랑예술제 개최

도내 아동복지시설 600여명이 만든 감동의 하모니 트럼폴린부터 사물놀이까지, 다채로운 재능의 향연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도청 공영장에서 제17회 희망나무 사랑 예술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종사자, 후원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연말 분위기 속에서 함께했다.

희망나무 사랑예술제는 아동들의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성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북아동복지협회(회장 양향환) 주관으로 14개 팀이 참여해 트럼폴린, 사물놀이, 맨스,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펼쳤다.

특히, 행사 중 진행된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는 전북의 미래 주역인 아이들과 함께 도지사 및 주요 참석자들이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와 자립을 준비 중인 모범 아동에게 도지사 표창 및 교육감상이 수여되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공연은 아동들의 귀여운 움직임으로 시작하여 크랩폴린 쇼, 톤치임 연주, 치어리딩, 방송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아이들의 열정과 재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예술제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 여러분의 아동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7년 연속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우수기관 선정

익산시도 장려기관 선정... 각각 특교세 2억원·5000만원 확보 '인명피해 제로' 목표로 철저한 사전대비·신속한 대응 빛나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32개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대비 실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재난 대응조치 등을 종합 점검하여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빈틈없는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익산시가 장려기관으로 선정

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각각 특발교부세 2억 원과 5천만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여름철 기록적인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행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 524곳에 대한 사전대비 훈련, 도 홈페이지를 통한 대피정보 제공,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전주 서신지하차도를 포함한 시내 3개 지하차도에 재해취약지(노약자,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인명탈출시설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며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7월 10일 군산시 어청도에서 기록적인 강우량(146mm)과 완주군 운주면 장선천 범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피 조치를 통해 인명피해를 방지했다. 도는 면사무소, 마을 이장, 주민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피와 구조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부단체장 중심의 보고체계를 가동하며 주요 시설 사

전 차단 및 통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 대피를 체계적으로 시행했다. 2023년도에 이어 올해까지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자연재난 대응 선도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했다.

운동목 도 시민안전실장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도민이 선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우수기관 선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내년 3월 15일까지)에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제로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장수시장 찾아 대설 대비·화재 예방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장수시장을 찾아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대설에 대비하고 연말연시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운동목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을 중심으로 장수군 공무원, 장수소방서, 건축·전기·가스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분별로 고강도의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여부 △가스 이드 지붕 및 기둥의 손상 여부 △누전 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가스 배관의 부식 및 누출 여부 △스프링클러, 유도등, 소화전 작동 여부 및 소화전 알 적재물 비치 여부 등이 꼼꼼히 이뤄졌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 관리 주체에 통보하고, 조치 완료 시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운동목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폭설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상인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연말연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 8개소를 표본 점검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전통시장 이케이드 지붕 등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 '우수'

전북자치도·장애인인권연대, 각각 우수지자체·우수기관 선정 장애아 돌보미 처우개선 전국 유일... 현장 평가서 높이 평가받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가 실시한 전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현장평가에서 전북자치도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가 각각 우수지자체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상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아가정에 1,080시간 범위 내의 돌보미 파견서비스와 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대상으로 △사업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관리 2개 영역에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전북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북은 노동강도가 높은 장애아 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7월

부터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아 돌보미 건강검진비, 근로자보수교육수당, 중증장애인가산수당 등을 지원하는 점이 좋은 평가를 이어졌다. 이 같은 처우개선 노력은 전국에서 전북에서만 이루어진 사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향후 장애아 돌보미 양육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해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선정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북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저탄소농업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 드려요’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23일부터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의 첫걸음으로,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농가에서도 쉽게 적용 가능한 △중간 물떼기 △논물 알개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세 가지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내용은 중간 물떼기 ha당 15만원, 논물 알개 걸러대기 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ha당 36만4,000원으로, 세 가지 활동을 모두 이행할 경우 ha당 최대 67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논물관리는 1월부터 3월까지, 바이오차 투입 활동은 8월에 신청 및 점수를 진행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점검 및 이행 확인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로 845명, 2,381ha를 확정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면적 최소기준을 기존 50ha에서 20ha로 완화하고, 가을같이 영농활동을 추가하여 저탄소 영농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최재용 동농생명축산식품과장은 “농업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 과제라 떠오르고 있다”며, “저탄소 영농활동은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창조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우수 초기 스타트업 투자기관 선정 '쾌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 이하 전북센터)는 지난 19일 서울 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2024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KAIA) 스타트업 빌더즈 어워즈'에서 우수 초기 스타트업 투자기관 부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받았다.

본 행사에서는 올 한해 초기투자 및 창업지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개인, 기관에 대해, 장관상, 협회장상 등을 시상했고, 공공형 우수 초기 스타트업 투자기관에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일하게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와 한국 초기투자기관협회 양 기관이 통합된 후 첫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장관상 수상은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산업은행 KDB 넥스트리드 '푸른개구리상'을 수상한 이후 쾌거로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스타트업 및 벤처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주목 받는 것



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전북센터는 강영재 센터장 취임 이래, 초기투자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다. 지역의 초기투자 전담기관으로서, 투자담당조직을 개편, 자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J-ave 배지프로그래'를 신설해, 발굴, 육성, 보육, 투자, TIPS, 대기업파트너 연계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모태펀드를 유치했고, 올 한해는 TIPS 운영에 선정되어 팀테크 팀스 창업 기업을 배출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초기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도,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역량 '최우수'

특별교부세 4000만원 재정인센티브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광역자치도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탁월한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공유재산의 계획, 관리,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재정 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정성 △재산관리 △재산활용 △가점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도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광역자치도 중 최우수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재정 운용에 한층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역 발전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